

# 전남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대폭 강화

잔류농약 검사 확대·유기농종합보험 도입 등 5대 시책 추진

전남지역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확대하고, 유기농종합보험을 도입하는 등 친환경농산물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5대 시책이 추진된다.

전남도는 생명식품산업 육성 제2차 5개년 계획을 통해 ▲시·군 단위 주력 인증기관 지정 ▲잔류농약 검사 ▲생산이력등록제 ▲유기농종합보험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체 운영 등 5대 시책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군 단위 주력 인증기관 지정은

일선 시·군이 1~3개의 친환경농산물 전문인증기관과 협약을 맺고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 및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해 인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위해 1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학교급식 등에 공급되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출하 전 검사를 실시해 합격품에 한해 공급하기로 했다.

무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대해서는 생산과정과 유통단계

별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생산이력追溯등록'을 의무화해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유기농 종합보험제도'를 도입해 소비자들이 구입한 친환경농산물이 잔류농약 검출이나 부패·훼손됐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생산자도 자연재해나 병해충 등으로 피해를 볼 경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친환경농산물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민간인증기관이 인증한 농산물의 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종화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농산물 부적합 판정농가는 인증취소와 후 3년간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폐널티도 적용할 계획"이라며 "5대 시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필기자 bungy@kwangju.co.kr

자리산·섬진강 문화연대  
대표작품전집 3권 출간

자리산과 섬진강을 공통분 모로 하는 전남·전북·경남의 3개도 15개 시·군 문인들의 작품집이 출간됐다.

'자리산·섬진강권 문학연대'(공동대표 이종인)는 최근 도 문예진흥기금 100만원을 지원받아 회원들의 대표작을 모은 전집 3권(장태윤·이종인 공저)을 펴냈다.

이번 발간된 작품집에는 1·2권에 대한 평론을 비롯해 회원들의 시와 수필 120여편에 대한 작품평이 실려있다.

지난 2007년 9월 결성된 '자리산·섬진강권 문학연대'는 ▲전남(곡성·구례·광양)

▲전북(남원·순창·임실·장수·진안) ▲경남(거창·함양·산청·진주·남해·사천·하동)의 한국문인협회 지부 회원들로 구성돼 각 지역문화의 전통성과 인적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자리산·섬진강권 문학연대는 대표작 발간뿐만 아니라 각 시·군의 시비와 문학비 건립에 따른 문화관광 네트워크 형성과 문학기행, 심포지엄 등도 계획하고 있으나, 경제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어 과격적인 도 차원의 지원을 바라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계중기자

## 담양석재 갈등 3년만에 타결

주민 주거환경권 보장 9월까지 쇄석기 공장 철거

담양군 무정면에 위치한 담양석재(주) 관련 민원이 3년여 만에 진전 타결됐다.

담양군은 지난 1일 군수실에서 최형식 군수를 비롯 담양석재(주) 김승철 대표와 무정면 쇄석기 철거대책위원회 이재숙 위원장, 최병언 무정면 이장단장, 김진덕 무정면 자치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서에 따르면 무정면 양평리에 설치된 쇄석기 공장을 오는 9월 30일까지 주민의 폐적인 주거환경권이 보장될 수 있는 업종이 유치되도록 막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9월 30일 이전에도 부합한 기

업이 유치되고 공장매매 계약이 체결돼 잔금이 원불될 경우 가동을 즉시 중단하고 쇄석기 시설을 철거키로 했다.

무정면 민원해소대책위원회는 지난 3년동안 군청 앞에서 벌여온 농성을 해산하고 농성 시설물의 철거와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공장 폐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군은 쇄석기 공장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정보제공 등 행정지원에 최대한 협력하고, 매각되기 전까지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군과 주민대표, 회사대

표 등으로 3자 협의체를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소집, 협약진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담양석재산업(주)과 무정면 쇄석기 철거대책위원회는 상호 제소한 각종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 고소·고발 등을 즉시 취하키로 했다. 또 담양석재산업(주)은 주민들이 주거환경권 보호를 위해 수행한 각종 소송경비 일체를 보상하고, 민·현사 사건으로 주민들에게 부과된 벌과금과 이미 납부한 벌과금 전액을 보상키로 했다.

협상을 중재한 최형식 군수는 "만시지탄이 있지만 대책위와 회사가 원만히 합의를 했다"면서 "매월 만남을 통해 협약서를 약속대로 이행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취재본부=노정훈기자 cjob17@



전남경찰청장, 나주경찰과 산상워크숍

임승택 전남경찰청장은 지난 5일 나주 금성산에서 조직분위기 회복을 위해 임승택 시장과 박병동 나주시장, 경찰서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jung@



나주소방서, 설 연휴에 고드름 제거 '호평'

고드름 제거작업을 벌였다. 이곳은 5층 건물 지붕에 쌓인 눈이 얼어붙어 밑을 지나는 행인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 순천만서 도심까지 생태축 조성

시, 에코시티 기본계획 수립... 정원박람회장과 연계